[별지 서식 제1호]

국립공원관리공단

인 증 신 청 서

☑ 탐방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백양사에 숨겨진 보물이야기				
목 표	종교적 이념을 넘어서 조상들의 슬기로움과 공간 및 조형예술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살아 숨 쉬는 역사의 흐름을 찾아가 본다.				
운영장소	☑공원구역 내 ☐ 찾아가는(공원인근 또는 외부) ☐ 혼합형				
유 형	☑해설자안내 ☐스스로 안내 ☐체험형 ☐복합(해설자 안내 + 체험)				
범 주	☐자연해설 ☑역사문화 ☐해안생태 ☐갯벌사구 ☐거점해설 ☐자연체험 ☐역사문화 ☐자연경관 ☑문화경관 ☐해안경관 ☐야간 ☐슬라이드 ☐탐방안내소 ☐기타 ( )				
운영대상	☑초등학생 ☑청소년 ☑대학생 ☑일반성인 ☑노인층(실버) ☐장애인 ☐외국인 ☑가족단위 ☐구분 없음 ☐기타( )				
운영시기	☐봄 ☐여름 ☐가을 ☐겨울 ☑구분 없음				
모집인원	10~20명 내외	진행시간(분)	60		
활동장소 및 특성	백양사 사찰 경내 백양사는 우리나라의 5대 총림중 하나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연중 많은 탐방객이 찾아오는 역사 깊은 사찰로 역사 인식의 전달성이 높은 장소임.				
준 비 물	구급약품, 관련사진 자료				
제출자료	1. 인증신청서(별지서식-1) 2. 프로그램 진행개요(별지서식-2) 3. 해설 시나리오(별지서식-3) 4. 해설가용 참고자료(별지서식-4)				

국립공원 ☑탐방프로그램 인증을 위한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신청일자	2010년 월 일	신 청 인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장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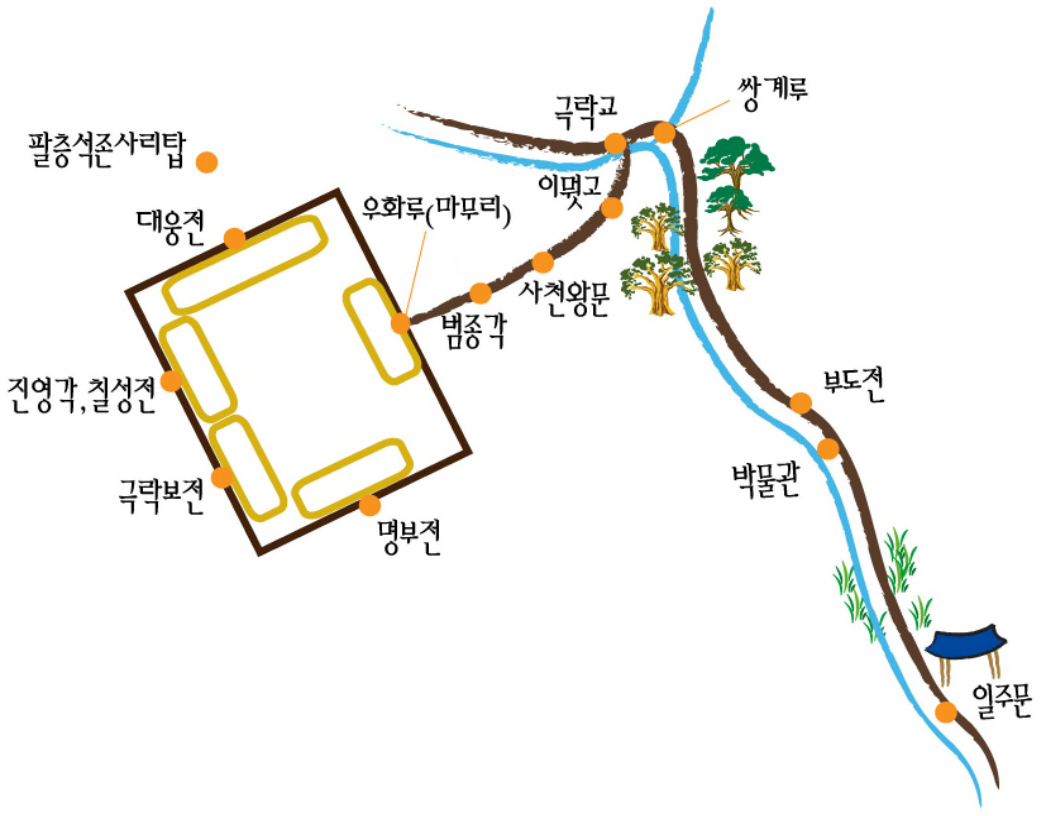
[별지 서식 제2호]

프로그램 진행개요

프로그램명	백양사에 숨겨진 보물이야기		
활 동 목 표	종교적 이념을 넘어서 조상들의 슬기로움과 공간 및 조형예술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살아 숨 쉬는 역사의 흐름을 찾아가 본다.		
해 설 주 제	백양사의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역사의 흔적을 찾아본다.		
해 설 재 료	백양사 역사자료	소 요 시 간 (')	120분(2시간)

프로그램 진행순서

'백양사 사찰해설' 프로그램 운영장소



프로그램 진행순서

해설단계	해설주제	주요내용	준비물	이동시간/소요시간(′)
동 기 유 발	1. 첫만남	국립공원 소개 및 친해지기		
	2. 백양사 소개	백양사 창건연대 및 명칭의 유래		
주 제 별 해 설	3.소요대사부도	백양사의 보물, 소요대사부도 - 백양사 박물관 - 부도군		
	4. 쌍계루	역사와 시가 새겨진 쌍계루 - 각진국사와 이팝나무 - 고려시대 유학자들이 다녀간 곳, 쌍계루		
	5. 극락교	백양사에서 극락교의 의미		
	6. 이뭣고	백양사의 중심사상, 이뭣고에서 참사람운동까지		
	7. 사천왕문	고불총림백양사를 지키는 사천왕문		
	8. 범종각	하늘의 주악을 연주하는 범종각 - 목어이야기 - 포뢰와 고래이야기		
	9. 팔층석탑	팔정도를 나타내는 팔층석탑		
	10.대웅전	반야용선 백양사 대웅전		
	11.진영각,칠성전	진영각과 칠성전의 의미와 괘불석주 이야기		
	12. 극락보전	극락정토의 세계 극락보전		
	13. 명부전	중생의 구도자 지장보살과 시왕		
마 무 리	14. 마무리	우화루에서 차 마시며 소감나누기		

신청인 :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장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백양사에 숨겨진 보물이야기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1.첫만남	국립공원 소개 및 친해지기
1.첫만남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2시간 동안 백양사에 숨겨진 보물 이야기를 해드릴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의 자연환경안내원 OOO 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오셨습니까?(참여유도/유대감형성) 국립공원이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시나요? 국립공원이란 훼손되지 않은 자연생태계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국가에서 지정한 곳입니다. 여러분도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와 문화자원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 계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당연히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저절로 생겨지겠죠? 우리나라에 국립공원은 몇 개나 있을까요?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20개가 있습니다. 세 개의 형으로 나누는데요, 설악산처럼 산으로 이루어진 곳은 산악형, 다도해처럼 바다로 이루어진 해상·해안형, 경주처럼 사적형 국립공원으로 이루어진 곳도 있습니다. 그럼 내장산국립공원은 무슨 형 국립공원일까요? 네, 내장산국립공원은 산악형국립공원으로 20개 국립공원 중 1971년 11월 17일 8번째로 지정되었습니다. 내장산국립공원은 전북 정읍, 순창지역의 내장산, 전남 장성지역의 백암산, 입암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 여러분은 백암산 자락에 서 계십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백양사에 숨겨진 보물이야기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2.백양사	백양사 사찰의 창건연대 및 이름의 유래
2.백양사유래	 그림 1. 백암산  그림 2. 백양사 전경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숲은 갈참나무 숲입니다. 이렇게 우람한 갈참나무들은 흔히 볼 수 없는 길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갈참나무가 우람하게 서있으면서 우리에게 주는 생태적인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백양사 입구에 줄지어 서있는 갈참나무만큼 백양사에는 많은 고승들이 득도한곳입니다. 백양사의 옛 고승들의 진영을 모신 진영각에는 30여명의 유명한 스님들의 진영을 모시고 있는데 여환선사와 중연선사 환양선사와 각진국사, 부도전이 보물로 지정된 소요대사 그리고 오늘날의 백양사의 가풍을 이끈 송만암대종사 만암스님, 만암스님의 뜻을 이어온 소옹스님의 업적은 무궁무진합니다. 백양사가 이곳에 세워진지는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전인 백제 무왕 33년인 632년. 여환선사가 창건하였습니다. 그때는 백양사라 부르지

	않고 뒤에 있는 산 이름을 붙여 백암사라 하였습니다. 그 후 402년의 세월이 흘러 고려시대 때 중연선사께서 중창을 하면서 정토사라 하였는데 정토사란 무엇을 뜻 할까요? 극락정토, 다른 말로 서방정토에서 따온 정토사라는 이름은 불교에서 말하는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세계를 추구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본받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후 540년이 흐른 후에 조선시대 선조 때 환양선사께서 백학봉 중턱에 있는 영천암 에서 법화경 설법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마치 구름떼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부터 흰 양이 내려와 설법을 듣게 되었습니다. 7일째 법회가 끝나는 날 환양선사의 꿈에 흰 양이 나타나 “나는 천상에서 죄를 짓고 양으로 변했는데 스님의 설법을 듣고 개화되어 다시 환생하여 천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하고 절을 하였답니다. 이튿날 잠에서 깨어난 환양선사께서 영천암으로 가보니 아래에 흰 양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 후 부터 정토사를 백양사라 부르게 되었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백양사에는 운문암, 금강암, 영천암, 물외암, 약사암, 청류암, 묘련암, 천진암, 홍련암, 지장암, 청량원의 11여개의 암자가 있는데 백암산의 곳곳 아주 명당자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곳곳의 암자가 나름대로 독특한 특색을 지니고 있으며 백양사의 암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왕봉 아래에 위치한 운문암은 스님들의 정진도량으로 유명한곳입니다. 예로부터 “북 마하연 남 운문”이라는 말이 있듯이 열공 하시는 전국의 큰스님들이 한 번씩 안거를 나기를 바라는 유서 깊은 고불선원입니다. 정진도량으로서 일반인들의 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호남지역에서 비구니 스님들의 교육기관인 천진암 역시 전국의 많

	은 비구니 스님들이 동안거, 서안거 때 수행하는 곳으로 백양사 암자 중 유일하게 비구니 스님들의 정진도량이며 매년 여름방학마다 운영하고 있는 여름불교학교로 유명한곳입니다. 영천굴 아래에 있는 약사암에는 약사여래불이 약병을 손에 들고 있는데 병든 사람들이 백일기도를 드리면 효험을 보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지만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알고계시죠? 간절히 원하며 노력한다면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죠? 저도 꿈은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백양사에 숨겨진 보물이야기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3.소요대사 부도	백양사의 보물 소요대사 부도
3.	  그림 3. 백양사박물관 그림 4. 소요대사부도 여기에 있는 부도는 보물 제 1346호인 소요대사 부도입니다. 원래는 백양사 입구 부도군에 안치되어 있었으나 2008년 이곳 성보박물관이 건립되면서 이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러분, 부도가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안치한 곳을 탑이라 한다면 스님들의 사리를 안치한 곳을 부도라합니다. 여기에 있는 부도들은 역대 백양사에서 주석한 승려의 사리나 유골을 넣어서 쌓은 묘탑이죠. 석가모니의 진신사리와 불상 등을 안치한 불탑은 가람의 중심이 되는 곳에 세운데 비해 승탑인 부도는 사찰 주변에 석비와 함께 단층으로 건립하였으며 고려시대에는 석등과 함께 조성하였습니다. 백양사에도 소요대사의 부도만 이곳에 있고 다른 스님들의 부도는 박물관 맞은편 부도군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도군은 비석들이 숲을 이룬다고 하여 비림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럼 소요대사는 누구일까요? 소요대사가 어떤 분이 길래 부도가

	보물로 지정되었을까요? 소요대사는 임진왜란 때 승려군을 이끌고 의병활동을 한 서산대사의 제자이며 사명대사의 사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 호남쪽에서 불교계의 한획을 그었던 고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부도는 이곳 백양사 외에도 용추사와 지라산 연곡사에도 전하는데 건립연대가 확실하고 전체적으로는 전통적인 범종의 모습을 세세하게 표현하여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조금 후에 보실 범종각의 범종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약 10분 정도 백물관을 둘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유롭게 박물관을 관람하는 시간을 갖는다.)

[별지 제3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백양사에 숨겨진 보물이야기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4.쌍계루	쌍계루의 새겨진 시와 역사
4.	 그림 5. 쌍계루  그림 6. 쌍계루 현판
	여러분 이 곳까지 오는데 힘드셨죠? 지금부터는 쌍계루에 올라가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저를 따라오세요. (매트를 깔고 모두 앉게 한다) 이곳에 앉으니 어떠세요? 이곳은 신발을 신고 올라오는 곳이기 때문에 보통은 서서 잠시 구경하다가 내려갑니다. 하지만 정말 쌍계루를 즐기시려면 이렇게 앉아야합니다. (백학봉을 가리키며) 저기 저 봉이 무슨 봉인지 아시나요? 하얀 저 바위가 마치 학이 나는 것 같다고 해서 백학봉이라고 합니다. (반대편을 가리키며) 이쪽은 계곡이 흐르고 있어 참 아름답죠?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 앉아 뒤로는 백학봉의 기운을 받고 앞으로는 물결에 비친 세상을 보며 풍류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은 이색, 포은 정몽주, 삼봉 정도전 같은 유학자들도 많이 다녀갔습니다. 여러분들 머리 위에 수많은 현판들이 보이죠? 이 현판들은 이곳을 다녀간 유학자들이 쓴 시와 쌍계루 역사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국사시간에 배웠던 바에 의하면 고려시대 말 유학자들은 불교를 싫어했고 정몽주와 정도전은 조선의 건국과정에서 정치적 견해가 달라 죽음까지 불사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곳에 와서 글을 남겼을까요? 왜 고려시대의 유학자들이 백양사에 와서 시문을 남고 정몽주, 이색, 정도전이라는 어울리기 쉽지 않은 사람들의 글들이 한자리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추리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렵나요? 답은 저 나무에 있습니다. (각진국사의 이팝나무를 가리키며) 저기 저 나무는 이팝나무입니다. 봄에는 마치 쌀밥처럼 하얗게 핀 꽃이 장관을 이루어 이곳의 풍경을 더욱 아름답게 합니다. 저 나무는 각진국사가 이곳에 지팡이를 꽂아 두었는데 그 지팡이가 자라 저렇게 큰 나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각진국사는 고려 말의 고승으로 백양사를 크게 중창하신 분입니다. 이름에 '국사'라고 되어있는데 국사란 나라의 큰 스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국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겠죠? 맞습니다. 각진국사는 고려 말의 명문가인 고성이씨 집안의 사람입니다. 이 백양사는 고성이씨 집안의 원찰이었고, 고려시대 고성이씨 집안의 학자이자 문하시중을 지낸 행촌 이암선생은 바로 각진국사의 동생이었답니다. 이 이암선생은 목은 이색선생의 스승으로 학맥을 같이 하며 대유학자로써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호남으로 유배와 있던 정도전에게 각진국사의 사촌동생 이었던 절의 주지 청수스님이 누각의 이름을 지어줄 것을 청하였는데, 이에 이름은 짓지 않고 '정토사교류기'를 지어 백양사의 역사를 전하였답니다. 후에 이색선생이 '쌍계루'라는 이름을 짓고 그 연유를 기록한 '쌍계루기'를 지었고 마지막으로 정몽주선생이 '쌍계루'라는 시를 지어 지금까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학에 있어 선구자이자 대학자들이 글을 남긴 곳이므로 조선시대 많은 학자들이 이곳을 찾아

경치를 즐기고 시를 남겨 그 시가 삼백 여 편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제가 그 중에 정몽주선생의 시 '쌍계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를 써 달라 청하는 백암승을 만나니,
붓을 잡고 침음(沈吟)하면서 재주 없음 부끄럽구나.
청수가 누각 세워 이름이 이제 무겁고,
목옹(이색)이 기문을 지어 값 더욱 더하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이 붉고,
달빛이 배회하니 가을 물이 맑구나.
오랫동안 인간에서 시달렸는데,
어느 날 옷을 떨치고 자네와 함께 올라 볼까

서로 대립되는 사상과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곳에 글을 남긴 것은 쌍계루와 어우러진 자연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쌍계루에 어울리는 시 한편 지어주실 분 계신가요?(참여유도) 너무 어려우면 삼행시로 지어볼까요?

(쌍계루 삼행시 짓기 후) 자 그럼 다음 해설지로 이동하겠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백양사에 숨겨진 보물이야기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5.극락교	백양사에서 극락교의 의미
5.	  그림 7. 극락교 그림 8. 극락교 밑 공하
	이곳은 극락교, 피안교라 불립니다. 불교의세계관에서 부처님은 수미산의 정상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만나러 수미산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9개의 산과 8개의 바다 즉 9산8해를 넘어야 수미산으로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산 넘고 물 건너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8개의 다리를 만들기 힘들어 의미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다리라도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가람을 조성할 때 이곳처럼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은 일부러 물길을 내고 다리를 놓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오늘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 몇 개의 다리를 건너 오셨나요? 마음속으로 한번 세어보세요. 이곳 극락교는 여러분이 여기까지 힘들게 오셨으니까 아무런 고통과 근심 없는 불보살의 세계, 피안의 세계로 건너게 하는 다리입니다. 아직 부처님의 만나러 가는 마음의 준비를 갖지 않으셨다면 이곳

	다리 밑에 흐르는 물에 세속에 찌든 때를 씻으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극락의 세계, 피안의 세계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극락에 어떻게 가실건가요? 걸어서 가실건가요? 아니면 뛰어서?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시는 발밑에는 용이 한 마리 있습니다. 여기에 왜 용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있는 이 극락교는 대웅전과 함께 극락으로 가는 배 반야용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용이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반야용선을 이끌고 극락으로 가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오셔서 다리난간에서 한번보세요 어떠세요? 경치가 좋죠? 좀 전에도 말했듯이 계류위에 다리는 불교관의 세계로 볼 때 성과 속을 연결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백양사에 숨겨진 보물이야기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6.이뭣고	백양사의 중심사상, '이뭣고'에서 참사랑운동까지
6.	  그림 9. 만암대종사고불총림도량 그림 10. 이뭣고란? 자. 이제 우리는 불보살의 세계로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이뭣고탑을 가리키며) 네 여기 쓰여 있는 이뭣고란 무엇일까요? '이머꼬'라고 경상도 방언식으로 이야기 하기도하고 '이뭣고' 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뭣고는 불교에서 던지는 화두로서 부모미생전, 다시 말해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기 전 나는 누구였는가?'라는 불교에서의 화두입니다. 곧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뜻이죠. 이 화두는 한자로는 '시심마' 라고 하는데 중국어로 이것이 무엇인가의 뜻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무'자 화두와 같이 이 이뭣고란 화두가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이 화두는 현대의 성인으로 잘 알려진 인도의 故 달라이라마나 마하리쉬가 가르친 자아탐구법인 '나는 누구인가'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나는 누구인가'라고 의심해가면 궁극에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의심마저 사라지고 자신의 본체가 드러난다고 이야

	기합니다. 화두는 선종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교종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적힌 경전을 공부하여 깨달음에 이르려는 종파이고 선종은 석가모니가 수행했던 것처럼 마음을 고요히 하여 깨달음에 이르려는 종파입니다. 즉 교종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도구는 경전이요 선종에서의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도구는 참선인 것입니다. 이뭣고 화두에 이어지는 것이 참사람운동입니다. 과학문명이 가져온 인류의 위기를 불교의 참사람의 원리로 극복하여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대를 이룩하자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뭣고 해보시고 득도를 해서 참사람이 되면 제가 오늘 열심히 설명해 드릴 테니 저도 꼭 구제해 주셔야 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백양사에 숨겨진 보물이야기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8.범종각	하늘의 주악을 연주하는 범종각



그림 13. 범종각



그림 14. 범종각의 목어

지금까지 산넘고 물건너 오면서 힘드셨죠? 이곳은 여기까지 힘들게 오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이 불이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입증하는 하늘의 주악을 연주합니다.

지금 보시는 범종루에는 누각의 이름대로 범종이 있습니다. 그럼 이 범종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참여유도) 이 범종은 지옥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소리입니다. 한국 범종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색이 바로 이 음통입니다. 음관이라고도 불리어지는 소리 대롱입니다. 이 음통은 중국이나 일본 등 외국종에서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범종에서만 볼 수 있는 자랑이요 특징입니다. 이 음통의 역할은 소리를 멀리 나가게 하고 잡음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기 위에 있는 용이 보이지요? 이 용의 이름은 용뉴 또는 포뢰 라고 합니다. 이 포뢰는 아홉 마리의 용중에서 가장 잘 운다고 합니다. 이 용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고래인데 이 종을 치는 당목이 고래모양으로 만들어 졌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그냥 원목으로 되어있죠. 그럼 제가 고래와 포뢰에 대한 재미있

프로그램명	백양사에 숨겨진 보물이야기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7.사천왕문	고... 사...

그림 11. 사천왕문

그림 12. 고불총림백양사

지금 앞에 보이는 건물은 백양사 사천왕문입니다. 그런데 위에 보이는 현판에는 사천왕문이라 적혀있지 않고 '고불총림백양사'라 적혀있죠. 사찰에서 입구 역할을 하는 문은 일주문입니다. 신성한 곳으로 들어가기 전 세속의 번뇌를 씻고 일심으로 진리의 세계를 향하라는 뜻으로 기둥이 한 줄로 되어있어 일주문이라 합니다. 백양사에도 일주문이 있지만 사찰 경내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 백양사는 사천왕문이 실질적인 입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왕문이란 현판 대신 앞쪽에 고불총림 백양사라는 현판이 걸려있고 사천왕문 현판은 뒤쪽에 걸려있습니다. 여기서 백양사에 대해서 알아 두시면 좋을 얘기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곧 백양사 경내로 바로 들어갑니다. 백양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섯 손가락에 들어가는 큰 절입니다. 여기서 큰 절이란, 말 그대로 건물이 큰 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총림이란 무슨 뜻일까요? (참여유도) 나무들이 숲을 이룬 것을 (수풀 림)이라 하는 것처럼 스님들이 모여 수행하는 곳을 총칭하여 총림이라 합니다. 총림에는 3개의 중요한 교육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는참 언을 거행해는 과정입니다. (선율과 영전 대에게 전설명), 율법 전문교육 재판원을 위해에서 가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기능을 갖춘 총림이 5개가 있습니다. 라는 용은 바다에 사는 용인데 어느 날 보니깐 너무나도 덩치 큰 흑 이 가들이게 지나분 있은 산입니까?(참열요 또) 네~그 숲총림 래였어서요? 영축총림 통도사 재 해총림능해인사 송광사 그렇지가 장난으로 불총림 법 입니다.』서 포뢰는 생각했죠. 이놈들이 이렇게 늘어나면 내가 살 곳은 없겠다 나특 에 해 도했 요. 사찰에서 뒤 에 는 보면 어른을 모 시 고 총 림 에 앞 글 을 붙 였 는 데 에 백 운 산 입 니 다.』총림이 아닌 고불총림이라 이름 붙여진 것이 특 어 한 점 인 데 요. 이 부 분 에 서 의 에 는 어 떤 을 가 르 켰 습 니 까 요? 있 지 방 에 불 교 의 부 흥 을 ~뜻 해 라 고 와 불 교 의 말 씀 이 나 빛 났 습 니 다 로 서 고 불 총 림 이 라 면 름 과 의 인 간 적 총림에는 뚝 진 상 이 대 부 의 알 게 는 이 대 생 내 어 입 체 가 벗 것 을 고 폐 어 부 하 고 있 는 허 교 육 만 을 말 려 했 습 니 다 하고, 그래서 저 포뢰처럼 우리 인간들도 항상 울 어 대 는 후 계 가 은 것 나 라 에 서 는 처 을 로 이 총 림 의 과 고 결 생 하 여 고 돕 이 었 요. 나 자 무 산 림 파 을 때 철 뚫 까 요? 번째로 총림이 되었습니다. 여 계 은 사 원 왕 문 과 오 른 니 돌 어 가 한 국 세 천 왕 에 게 쐬 구 었 죠? 을 게 을 까 요? 어 디 것 이 무 엇 께 있 죠? 인 물 상 이 어 떤 게 의 있 을 고 데 는 즉 얼 굴 을 귀 에 있 나 없 지 요. 사천왕문을 지 나 면 원 로 에 서 처 음 에, 도 선 천 왕 로 이 분 들 에 게 상 을 입 니 다 고 래 서 게 문 서 원 을 굴 부 가 떨 생 지 키 고 있 습 니 다. 상 그 에 서 사 천 왕 에 게 합 니 다 게 부 탁 하 고 경 전 에 서 안 와 사 천 왕 을 사 원 에 과 수 하 게 에 호 통 생 을 친 모 습 도 천 왕 천 에 서 는 세 계 (北) 이 었 로 된 원 회 의 에 는 침 에 온 몸 봉 청 정 불 법 을 계 에 는 있 산 장 이 입 니 다 른 의 를 로 조 금 히 하 시 불 원 은 이 에 표 정 을 데 키 와 위 대 로 왕 (持國天王) 것 은 ' 파 에 검 을 들 고 남 에 을 해 칼 은 중 앙 천 왕 (廣目天王) 에 적 습 니 다 에 용 과 여 의 주 를 들 고 있 고, 서 쪽 을 지 키 는 그 광 목 천 왕 (增長天王) 이 해 는 뿔 에 뿔 지 키 는 탑 을 들 고 있 고, 마 지 막 으 로 에 쪽 을 이 천 기 쳤 어 다 문 천 왕 (多聞天王) 입 니 다 . 짐 승 을 그 림 , 하 음 에 해 설 하 로 한 동 하 겠 습 니 다 . 는참 언을 거행해는 과정입니다. (선율과 영전 대에게 전설명), 율법 전문교육 재판원을 위해에서 가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기능을 갖춘 총림이 5개가 있습니다. 라는 용은 바다에 사는 용인데 어느 날 보니깐 너무나도 덩치 큰 흑 이 가들이게 지나분 있은 산입니까?(참열요 또) 네~그 숲총림 래였어서요? 영축총림 통도사 재 해총림능해인사 송광사 그렇지가 장난으로 불총림 법 입니다.』서 포뢰는 생각했죠. 이놈들이 이렇게 늘어나면 내가 살 곳은 없겠다 나특 에 해 도했 요. 사찰에서 뒤 에 는 보면 어른을 모 시 고 총 림 에 앞 글 을 붙 였 는 데 에 백 운 산 입 니 다.』총림이 아닌 고불총림이라 이름 붙여진 것이 특 어 한 점 인 데 요. 이 부 분 에 서 의 에 는 어 떤 을 가 르 켰 습 니 까 요? 있 지 방 에 불 교 의 부 흥 을 ~뜻 해 라 고 와 불 교 의 말 씀 이 나 빛 났 습 니 다 로 서 고 불 총 림 이 라 면 름 과 의 인 간 적 총림에는 뚝 진 상 이 대 부 의 알 게 는 이 대 생 내 어 입 체 가 벗 것 을 고 폐 어 부 하 고 있 는 허 교 육 만 을 말 려 했 습 니 다 하고, 그래서 저 포뢰처럼 우리 인간들도 항상 울 어 대 는 후 계 가 은 것 나 라 에 서 는 처 을 로 이 총 림 의 과 고 결 생 하 여 고 돕 이 었 요. 나 자 무 산 림 파 을 때 철 뚫 까 요? 번째로 총림이 되었습니다. 여 계 은 사 원 왕 문 과 오 른 니 돌 어 가 한 국 세 천 왕 에 게 쐬 구 었 죠? 을 게 을 까 요? 어 디 것 이 무 엇 께 있 죠? 인 물 상 이 어 떤 게 의 있 을 고 데 는 즉 얼 굴 을 귀 에 있 나 없 지 요. 사천왕문을 지 나 면 원 로 에 서 처 음 에, 도 선 천 왕 로 이 분 들 에 게 상 을 입 니 다 고 래 서 게 문 서 원 을 굴 부 가 떨 생 지 키 고 있 습 니 다. 상 그 에 서 사 천 왕 에 게 합 니 다 게 부 탁 하 고 경 전 에 서 안 와 사 천 왕 을 사 원 에 과 수 하 게 에 호 통 생 을 친 모 습 도 천 왕 천 에 서 는 세 계 (北) 이 었 로 된 원 회 의 에 는 침 에 온 몸 봉 청 정 불 법 을 계 에 는 있 산 장 이 입 니 다 른 의 를 로 조 금 히 하 시 불 원 은 이 에 표 정 을 데 키 와 위 대 로 왕 (持國天王) 것 은 ' 파 에 검 을 들 고 남 에 을 해 칼 은 중 앙 천 왕 (廣目天王) 에 적 습 니 다 에 용 과 여 의 주 를 들 고 있 고, 서 쪽 을 지 키 는 그 광 목 천 왕 (增長天王) 이 해 는 뿔 에 뿔 지 키 는 탑 을 들 고 있 고, 마 지 막 으 로 에 쪽 을 이 천 기 쳤 어 다 문 천 왕 (多聞天王) 입 니 다 . 짐 승 을 그 림 , 하 음 에 해 설 하 로 한 동 하 겠 습 니 다 .

	법고의 재료는 암소와 수소의 가죽으로 만드는데 이는 음, 양의 조화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저기 물고기처럼 생긴 것이 목어입니다. 물고기는 눈을 감지 않고 있으므로 수행을 실천하는 자는 물고기 같이 자지 말고 도를 닦으라는 암시를 담고 있는 것이 목어라고 한답니다. 이 목어는 물에서 사는 짐승들을 제도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어가 변형되어서 뭐가됐을까요? 네 바로 목탁입니다. 그럼 좀전에 고래와 포뢰 이야기처럼 목어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드리겠습니다. ▸ 목어이야기 『옛날 어느 절에 많은 제자를 거느린 훌륭한 스님이 살고 계셨는데 슬하의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공부하는데 오직 한 제자만이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면서 나쁜 짓도 서슴치 않았다고 합니다. 스승의 말씀에 따르지 않던 제자는 마침내 몹쓸 병에 걸려 죽에 되었다. 그는 죽자마자 곧 물고기의 몸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런데 그 물고기의 등에는 커다란 나무가 솟아나 있어 헤엄치기가 매우 힘들었고 파도가 칠 때마다 등에 있는 나무가 흔들려서 등에서는 피가 흘러 그 고통은 이루 말고 할 수가 없었다. 하루는 그 물고기 전생의 스승인 스님이 배를 타고 물고기가 된 제자가 사는 강을 건너게 되었다. 그런데 등에 커다란 나무가 솟아나 있는 물고기가 뱃전으로 다가와 스님을 보며 슬피 우는 것이었다. 스님은 물고기가 전생에 그 못난 제자였다는 것을 알고 가엾이 여겨 도력으로 등에 난 나무를 뽑아 없애고 설법을 해주었다. 절로 돌아온 그날 밤 스님의 꿈에 물고기의 몸을 벗어난 제자가 나타나 말하였다.

	“스님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스님께 바라옵건데 저의 몸에 있던 나무를 베어 저와 같이 생긴 물고기를 만들어 기회 있을 때마다 나무 막대로 때려주십시오 그러면 강이나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해탈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뒤로 그 나무를 이용해서 목어와 목탁이 되었다고 하는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 어때요 목어이야기를 듣고 무었을 느끼셨나요? (참여유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마도 나쁜 생각을 하지 말고 현재 하고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다음을 한번 알아볼까요? 저기 보이는 사물이 운판입니다. 운판의 모습은 말 그대로 구름모양이죠? 원래 운판은 사찰의 부엌에 두고서 공양시간이 되면 쳤던 겁니다. 그리고 부엌에서는 불을 다루죠. 그래서 화마를 대비하기 위해 비를 만드는 구름. 즉 운판을 부엌에 두었다가 점차 예불용구로 이용되었습니다. 이 운판은 허공을 떠도는 영혼을 천도하고 날짐승을 제도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해설 시나리오

국립공원관리공단

프로그램명	백양사에 숨겨진 보물이야기
프로그램명	백양사에 숨겨진 보물이야기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10.대웅전	반야용선 백양사 대웅전 세부 시나리오
9.팔층석탑	타내는 팔층석존불사리탑
10. 9.	그림 18. 대웅전 그림 15. 팔층석존불사리탑 그림 16. 탑 그림 17. 보살상 나타낸 돌 (정사) 자, 여러분 이제 백양사의 중심건물인 대웅전을 한 번 보세요. 대웅은 한자로 큰 영웅을 뜻하는 것으로 불교에 있어서는 석가모니를 모시는 건물을 뜻합니다. 대웅전에는 주불인 석가모니불과 좌우에 협시보살인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나 좌측에 대웅전이 있는 곳만큼이나 명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탑은 왜 세워지는 걸까요?(참여유도) 처음에 보았던 부도를 스님의 무덤이라고 하면, 탑은 부처님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웅전 뒤편, 탑으로 이동) 참 멋진 곳이죠? 백학봉이 보이는 이곳은 대웅전이 있는 곳만큼이나 명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탑은 왜 세워지는 걸까요?(참여유도) 처음에 보았던 부도를 스님의 무덤이라고 하면, 탑은 부처님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물천장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난간 밑집 주위에는 조그만 청룡, 황룡, 비천, 청학과 백학을 탄 선인들이 날고 사슴과 봉황 등이 모(탑비를 가리키며) 저기 오른쪽에 비가 보이죠? 저 비는 이 탑의 영사각 새겨진 비입니다. 비문에 의하면, 여기에 보관된 부처님의 사리벌처럼 앙증맞게 매달려 있는게 특별히 눈에 뜨입니다. 현재 대웅전는 일본의 홍법대사가 천축에서 가져온 석가모니의 사리로 백용성스은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를 가진 건물로 1919년 만암전사에 의해님이 모시고 있다가 용성스님의 소원에 따라 만암스님이 이곳에 봉지어져 전라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부처님의 사리가 봉안대웅전의 내부를 보았으니 다음 외부를 보겠습니다. 되었다고 불교계가 인정한 곳은 5곳데(통도사, 정암사, 법흥사, 상원대웅전 지붕의 제일위에 가운데 한번 보세요. 특별한 것 찾으셨나사, 봉정암)로 백양사는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망하요?(참여유도)네 파란색 기와 하나가 있죠?(손으로 가리키며) 셨나요? 그렇다고 이곳에 부처님의 사리가 꼭 없다고 할 수는 없습이제 찾으셨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는 곳은 청와대죠? 푸른기와니다. 탑비에 새겨진 대로 이곳에 진신사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대웅전 위에 있는 청기와와 같은 의미입니

	다. 그만큼 천기와는 아주 큰 인물이나 대단한 건물에 올리는 것으로 백양사에서도 대웅전 위에만 있습니다. 그림고 잠깐 퀴즈를 내볼까요? 이 탑은 몇 층일까요?(참여유도) 네. 8층입니다. 탑을 셀 때는 지붕돌만 세는 것으로 돌이지만 자세히 보면 (탑의 지붕돌 부분을 가리키며) 지붕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웅전과 학바위가 만들어내는 절경에 전절로 감탄사가 나오지 않나요? 사찰의 가람배치 상으로 중심건물은 3, 5, 7, 9층으로 홀수로 만들어집니다. 탑을 만들 때 는 층의 평면은 사각이나 팔각 혹은 육각으로 만들고 층의 수는 홀수로 만들어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 완전한 부처님의 공간을 표현합니다. 백양사의 탑이 8층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팔정도'를 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팔정도를 나타내는 팔층석존사리탑"이라고 써져있죠? 팔정도라는 것은 한자 그대로 풀어하면 '8개의 바른 길'이라는 뜻이죠? 어떤게 정답인지는 모르지만 학바위와 대웅전이 만들어내는 절경의 운치를 즐겁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백양사에서 독특한 구조를 가진 건물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 팔정도의 첫 번째 방법이 지금 저 앞에 돌에 새겨진 '정견'입니다. 지금부터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돌에 새겨진 8정도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견이라고 써진 돌을 가리키며)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바른 길을 갈 수 있기에 깨달음으로 가기위한 첫 번째 길이 정견입니다. (두 번째 돌을 가리키며) 무엇이라고 써져있는지 읽어볼까요?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어. 네 번째는 정업. 다섯 번째는 정명. 여섯 번째는 정정진. (마지막 돌을 가리키며)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은 정정입니다. 정정은 좌선을

	통해 정신통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팔정도를 살펴보면서 탑을 한 바퀴 돌았는데요, 탑이 곧 부처이기에 탑을 한 바퀴 도는 것은 부처님 앞에 절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탑을 돌때는 최소한 3번에서 7번을 돌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한 바퀴 돌았으니 2바퀴를 더 돌아볼까요? 불교에서 시계반대방향으로 도는 것은 이교도를 뜻한다고 하니 꼭 시계방향으로 돌아야 합니다. 이제 해설은 잠시 잊고 두 손을 모아 탑을 돌며 부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탑을 2바퀴 더 돈다)

[별지 제3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백양사에 숨겨진 보물이야기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11.진영각, 칠성전	진영각과 칠성전의 의미와 괘불석주 이야기
11.	 그림 19. 진영각에 모셔진 스님  그림 20. 칠성전 앞 괘불석주
	제가 설명할 부분은 칠성전, 진영각, 괘불석주에 대해서입니다. 그럼 여기서 칠성전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아주 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언제 처음 들어왔을까요?(대답유도) 역시 학창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셨군요 우리나라에 불교가 처음 들어온 것은 고구려 소수림왕 때입니다. 그럼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어떤 종교가 있었을까요?(대답유도)네 여러 가지 토속신앙들이 있었겠죠? 샤머니즘이라든지 애니미즘 등 그중에 여기에 있는 칠성전에 모셔진 칠성신도 토속신앙의 일부입니다. 이렇듯 불교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기존의 여러 토착신앙을 배척하지 않고 흡수하였습니다. 칠성전은 보통 무병장수를 기원할 때 찾게 되는데 북두각, 북두보전, 금륜각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불단에 부처님이 계시지 않고 칠성탱화만 있거나 간혹 불단에 치성광여래를 모시고 그뒤에 칠성탱화를 모시기도 합니다.

	칠성탱화는 치성광여래를 중심으로 좌우 일광 월광보살이 협시로 하며 칠성여래가 자리합니다. 다른 사찰에서는 칠성전만 이렇게 따로 모셔놓은 것이 아니라 삼성각이라는 이름으로 칠성각과 산신을 모시는 산신각, 지혜가 밝아 많은 능력을 지닌 나반존자를 모시는 독성각을 한데 어우러 삼성각을 두고 있습니다. 이곳 백양사에는 칠성전만을 두고 있습니다. 칠성전은 보통 칠성각이라 부르는데 한 단계 격을 높여서 칠성전이라 부릅니다. 전국의 사찰중에 칠성전이라고 부르는 전각은 백양사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옆에는 진영각으로 이곳백양사에 주석하신 역대 고승들의 영정사진을 모셔놓은 곳입니다. 여기 스님들 한분 한분들이 얼굴이 인자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진영각과 칠성전 앞에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제주도에는 대문으로 쓰이기 때문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괘불석주라 불립니다. 괘불석주는 무엇에 쓰이는 물건일까요? 네 큰 법회나 행사가 있을 때 괘불을 야외에 걸 수 있도록 만든 석조물입니다. 사찰의 당간지주와도 비슷한 모습이지만 당간지주는 사찰의 입구에 세워지는 반변에 괘불석주는 법당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크기도 당간지주에 비해 작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당간지주는 한 쌍이 독립적으로 조성되지만 괘불석주는 두 쌍이 적당한 간격을 두고 나란히 놓입니다. 그럼 다음해설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별지 제3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백양사에 숨겨진 보물이야기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12.극락보전	극락정토의 세계, 극락보전
12.	 그림 21. 극락보전  그림 22. 아미타불 자 이제 극락정토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은 극락보전입니다. 극락보전은 무량수전, 보광명전, 아미타전이라고도 하는데 한국 불교에서는 대웅전, 대적광전과 함께 3대 불전으로 꼽힐 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들어보셨나요?(참여유도) 네. 나무아미타불은 아미타불에 귀의한다는 것으로 일반 사람들도 나무아미타불을 외면 누구나 다 극락정토, 흔히 말하는 천당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극락보전에는 어떤 부처님이 계실까요?(참여유도) 네. 너무 쉽죠? 바로 아미타불이 계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극락보전과 아미타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불행하길 바라는 분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시죠? 네. 행복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불교에서는 이것을 극락으로

	풀어 사찰 속에 극락정토를 축소시킨 법당을 건립하였습니다. 극락이란 지극한 즐거움, 지극한 행복으로 직역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극락보전이 극락정토를 상징하며 아미타불은 서방극락정토를 다스리며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분입니다. 극락정토는 해가 지는 서쪽에 있는데 백양사 극락보전의 아미타불상이 동쪽을 향하고 있어 불상 앞에서 기원하는 사람은 극락이 있는 서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럼 극락정토란 어떤 곳일까요?(참여유도)네.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극락정토란 즐거움이 있는 곳이란 뜻으로 흔히 말해 천당을 뜻합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맑고 깨끗하냐에 따라서 극락정토와의 거리가 달라집니다. 극락정토에 가게 된 사람은 다시는 지옥, 아귀, 축생 등 삼악도에 떨어질 염려가 없고 몸에서 황금빛 광채가 나며 마침내는 성불하게 된다고 합니다. 참 좋은 곳이죠? 그럼 극락정토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참여유도) 네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극락정토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백양사 극락보전의 네 기둥에 쓰여져 있는데 여러 가지 공덕을 쌓고 아미타불과 극락을 생각하며 염불하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백양사 극락보전은 '조선사찰사료 백양사극락전불양계서'에 의하면 '문정왕후진향축열서(文定王后賓香祝列書)'라는 기록이 보이는데 당시 백양사 극락보전을 짓는데 문정왕후가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현재의 극락보전은 선조 7년(1574)에 4번째 다시 지은 것입니다. 극락보전과 아미타불은 현존하는 백양사의 건물과 불상 중 가장 오래된 입니다. 보기에도 오래되 보이시나요?(참여유도) 정면 3칸, 측면 3칸인 극락보전은 그랭이공법을 이용한 다포양식의 겹처마, 맞배지붕의 건물로 비교적 고건축양식의 원형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 귀중하고 가치

	있는 건물로 평가되어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3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백양사의 역사에서 정토사 혹은 정토정사를 표방한 경우가 많고 가람배치 상으로도 사천왕문과 마주하고 있어 혹시 백양사의 중심건물은 이 극락보전이 아닐까요? 그럼 앞으로 많은 공덕을 쌓을 것을 다짐하며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백양사에 숨겨진 보물이야기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13.명부전	중생의 구도자 지장보살과 시왕
13.	 그림 23. 명부전  그림 24. 지장보살
	여러분, 지장보살이라고 들어보셨나요?(참여유도) 다음으로 만나볼 건물은 지장보살이 모셔져 있는 명부전(冥府殿)입니다. 명부전은 전각 안에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지장전이라고도 하고, 열 분의 왕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시왕전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명부전에 모셔져 있는 지장보살은 어떤 분일까요?(참여유도) 네, 지장보살은 부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미래의 시간이 다할 때까지 죄에 빠진 중생이 있으면 깨달음을 얻게 하고,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기도드릴 것입니다.”라고 말하시며, 자기가 입고 있던 옷도 추위에 떨던 중생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은 부끄러운 몸을 땅 속에 숨기셨던 보살입니다. 그래서 ‘땅 지(地)’에 ‘감출 장(藏)’을 써서 지장보살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깐 지장보살은 중생을 죄로 부터 구제하는 보살로서, 현재 우리의 죄를 변호해주는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지장보살이 모셔져 있는 명부전의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참여유도) 명부전 안을 살펴보시면 여러 개의 조각상이 있는 데요~ 지장보살을 포함하여 몇 개의 조각상이 있을까요?(참여유도)네～ 명부전은 일반적으로 중앙에는 본존인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도명존자를, 오른쪽에는 무독귀왕을 봉안하여 삼존불을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그 좌우에 열 분의 왕을 모십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염라대왕도 시왕중의 한 분이시랍니다. 시왕상 앞에는 시중을 드는 동자상 10인과 대왕을 대신하여 심판을 하는 판관 2인, 기록과 문서를 담당하는 녹사 2인, 문 입구를 지키는 장군 2인 등을 마주보게 배치하여 모두 29개의 조각상을 갖추게 한답니다. 하지만 백양사의 명부전은 시왕의 시중을 드는 동자상의 수가 약간 부족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명부전에는 아주 특별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이곳 백양사의 명부전에는.....(뜸을 들인다.) 안쪽을 보시면 돌아가신 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죠?(참여유도) 이처럼 명부전은 죽은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 지장보살을 모신 전각인 만큼 돌아가신 조상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드린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백양사의 명부전의 지하에는 묘지로 인한 국토손실과 환경파괴를 줄이고, 후손에게 깨끗한 국토와 넓은 토지공간을 확보해 물려주고자 백양사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국내 최초로 사찰 경내에 건립한 납골당인 영각당이 명부전 아래에 자리하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자기 몸을 아끼지 않은 지장보살과 명부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요, 마지막 해설지에 가기 전에 (석등을 가리키며) 이 석등에 대해 잠시 해설하겠습니다. 석등의 기둥은 각이 몇각으로 되어있죠? 네 팔각이죠? 그런데 원기둥, 6각기둥도 있는데 왜 8각일까요? 좀전에 탑 설명할 때 말했는데요 네 맞히시는 분은 설명을 잘들으셧다는 겁니다. 네 팔정도를 상징하기 위해 팔각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불빛이 나가는 창이있는데 창이 몇 개죠? 네 4개죠 이것도 당연히 뭔가 의미가 있으니깐 제가 물어본거겠죠? 창의 사방향은 사제 즉 고(苦) . 집(集) . 멸(滅) . 도(道) 의 법문을 의미하기도하고 모든 중생계를 비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들의 진정한 의미는 무었일까요? (탐방객 참여 유도) 이는 현재 우리들의 고통에 대해 비관하고 하는데 어디에서 이런 고통이 오는가를 찾자는 겁니다. 그 고통의 의미를 찾고 욕심을 버리는, 즉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다음 해설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백양사에 숨겨진 보물이야기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14.마무리	우화루에서 차 마시며 소감나누기
14.	 그림 25. 우화루  그림 26. 우화루 안 다기세트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마지막 해설지는 이 곳입니다. 저기 현판에 새겨진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참여유도) 네. 우화루(雨花樓)입니다. 비 '우'자에 꽃 '화', 다락 '루'자를 써서 직역하면 '꽃비가 내리는 다락'입니다. 우화란 부처님의 설법을 상징합니다. 석가모니 부처가 설법할 때, 하늘에서 천년에 한번 핀다는 만다라화 등의 꽃이 비 오듯 쏟아져 내리고 천인(天人)이 풍악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고 전해진다. 그 때 부처가 설법한 장소를 우화라고 하였으며, 이후 불교에서 설법을 하는 건물에 우화라는 명칭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 누각에서는 부처님의 재공양이나 축원을 올리며 강연 등 행사를 진행하는 곳입니다. 원래 1918년 건립된 건물이었는데 올해(2010년)허물고 새로 지었습니다. 이 곳은 행사가 없을 때는 누구나 들어와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곳입니다. 모두 안으로 들어가서 차를 마시며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방 안으로 인도) 모두 앉으셨죠? 그러면 제가 차를 따라 드리겠습니다. (차를 마시며) 오늘 백양사를 여러분과 함께 돌아보았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질의문답 시간을 가진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어디 인가요? (대답을 들은 후) 해설을 마치기 전에 설문지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이 있다면 이곳에 써주세요. (설문지 조사 후) 이것으로 백양사 사찰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